

Dow, 전자재료사업부 양창원 대표 선임

글로벌 화학기업 Dow Chemical은 미국 본사의 전자재료사업부 총괄대표(부사장)로 양창원씨를 선임했다고 6월16일 발표했다.

양창원 선임 대표는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IBM과 모토로라 등을 거쳐 2008년부터 Dow Chemical의 디스플레이 분야 글로벌 총괄책임자와 R&H(Rohm & Haas) 한국지사장을 역임했다.

<화학저널 2010/06/16>